

친환경 바람타고 불황 끝... 韓 조선 3사, '흑자시대' 연다

조선3사, 연초부터 수주 펠리식을 줄 모르는 친환경 선박 인기 고부가 선박 수주 실적 개선 집중 글로벌 탄소중립 정책 맞춰 기대 ↑

국내 조선업계가 친환경 바람을 타고 수주 훈풍을 맞고 있다.

HD한국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등 조선업체들은 고부가 선박인 초대형 액화천연가스(LNG)선을 중심으로 수주 물량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차세대 친환경 선박 기술력 확보로 글로벌 탄소중립 정책에 맞춰 수주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한화그룹으로의 인수를 확정지은 대우조선해양은 경영 정상화에 속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7일 업계에 따르면 HD한국조선해양은 5월 7일 기준 올해 수주 목표치(157억4000만달러)의 62.2%(선박76척·97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HD한국조선해양이 최근 수년 간 기록한 수주 기록을 압도적으로 뛰어넘는 수치다. HD한국조선해양은 이달 초 총 2조 7900억원 규모의 가스선 12척을 수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지난 2022년 인도한 200K LNG운반선의 시운전 모습.

주했다. 친환경 선박 수주로 수익성 확보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이처럼 2021년부터 수주 물량이 증가하면서 고정비 감소 효과와 선가 회복, 원자재 가격 인상 둔화 등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실제 HD한국조선해양은 올해 1분기 영업이익 585억원을 기록하며 전년동기(-3964억원) 대비 흑자전환했다. 건조물량 증가 및 선가 상승의 영향으로 영업이익이 증가했다는 게 회사의 설명이다. HD한국조선해양은 지난해 3분기부터 세분기 연속 흑자를 이어오고 있다.

HD한국조선해양 관계자는 "LNG 운반선 등 고부가 수주가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수주 실적이 빠르게 충족되고 있다"며 "규모가 큰 건의 대형 수주도 압박한 분위기"라고 했다.

삼성중공업도 올해 안정적인 수주를 이어가고 있다. 삼성중공업은 지난 4월까지 총 25억달러 규모의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올해 목표치 95억달러의 26%에 달하는 수치다. 삼성중공업은 친환경 수주 물량을 바탕으로 올해 1분기 6년 만에 흑자 전환(영업이익 196억원)에 성공했다.

삼성중공업은 친환경 선박은 물론 '바다 위의 LNG 공장'으로 불리는 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생산설비(FLNG)에서 경쟁력 확보를 통해 글로벌 시장 공략에 속도를 높인다. FLNG는 해상에서 천연가스를 채굴한 뒤 배 위에서 정제하고 LNG로 액화해 저장·하역할 수 있는 고부가 가치 해양플랜트다. 육상 설비 건설비용을 줄일 수 있고, 해저 파이프를 설치하지 않아 생태계 보호도 가능하다.

삼성중공업은 FLNG 시장 가능성을 보고 2006년부터 개발에 나섰다. 전 세계 FLNG 5기 중 4기를 수주하며 경쟁력도 입증됐다. 지난 2일엔 FLNG 부유체 독자모델인 MLF-N이 노르웨이 DNV선급으로부터 기본 인증을 받기도 했다. 해당 기술은 원가 절감 효과가 두드러져 선박 적용 시 상당한 고부가 효과를 누릴 전망이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FLNG 1기 수주 금액은 10억달러 이상"이라며 "최근 LNG 운반선이 1척에 2만5000만달러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FLNG 시장은 충분히 긍정적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화 품에 안긴 대우조선해양은 '한화오션'이라는 새이름으로 수주전에 본격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우조선해양은 현재 LNG운반선을 제외하면 주력 제품이 없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4월까지 올해 목표치 69억8000만달러의 15%(10억6000만달러)를 수주하는데 그쳤다. 다만 FLNG, 부유식 저장 재기화설비(FSRU) 등의 기술력을 갖췄다는 점에서 합병 이후 공격적인 수주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화가 유럽과 미국 시장에 진출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우조선해양의 수주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국내 조선업체가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해 차별화된 기술 경쟁력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며 "다양한 고부가 선박 수주로 실적 개선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 하반기에 카타르 프로젝트 등 대규모 LNG 운반선 발주가 남아있어 실적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대세 된 전기차... 내구성·안전확보 중요”

김재웅의 봄봄봄

'전기차 보급 확대와 안전' 심포지엄 화재·급발진 등 소비자 불안감 ↑ 제도개선·안전교육 등 대책 마련

"전기차가 더 안정적으로 보급되기 위해서는 화재나 급발진과 같은 안전 사고 원인을 확인하고 불안한 소비자를 설득해야 한다" 최근 한국자동차기자협회(KAJA)가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와 안전'을 주제로한 심포지엄에서 참가자들은 입을 모았다.

지난 3일 방한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KITECH)는 이미 전기차 안전을 검증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다. 전기차 보급률이 5%를 넘은 자타공인 전기차 '테스트 베드' 제주. 자체 조사 결과 전기차 사용자 중 정비부문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다는 데에 착안, 2020년부터 190억원을 투입해 '전기차 통합 유지보수 실증기반 구축사업'을 시행 중이다.

제주연구원은 전기차 안전을 확인할



전기차의 전비 측정 및 분석, 주행 재현을 통한 전기차의 성능을 평가하고 있다

수 있도록 다양한 자체 검증 시스템을 갖췄다. 전기차 주행 재현 장비와 배터리 모듈 및 팩 성능평가 시스템, 내폭형 환경 챔버 등이다.

이들 장비는 전기차를 다양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전비와 출력이 제대로 나오는지, 또 배터리를 분리해 극한의 환경에서 성능이나 내구성을 측정하기도 한다.

가장 특별한 사업은 '실주행 전기차 실시간 모니터링 장비'다. 제주에서 운

행 중인 200여대에 장착해 모든 주행 데이터를 축적하고 분석하고 있다.

KITECH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까지 수집한 주행 데이터만 3.6TB(테라바이트)에 달한다. 2021년 2월 처음 시작해 2년여만이다.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하기 위한 서버와 담당자도 따로 두고, 솔루션도 자체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KITECH는 이를 통해 전기차 화재나 급발진 사고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해

당 사고가 전혀 발생하지 않아 관련 자료를 확보하지는 못했다는 설명이다.

주행 데이터는 전기차를 더 정확하게 이해하는 진단 기술을 개발하는데도 활용한다. '전기차 및 주요 전장품의 노후화 평가·분석기술', '샤시디나모를 활용한 차량의 고장 및 이상감지 기술', '배터리 사이클러를 활용한 수명진단 기술' 등이다.

이들 기술은 전기차 전후방 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 지원에 활용된다. 예를 들어 실주행 데이터 모니터링 기술과 고장진단 분석 기술, 부품 수명 등 데이터를 통해 활용해 리퍼비시 제품 개발에 활용하는 등 중소·중견 부품 기업으로 이전에 상용화하는 방식이다. 지역 정비 업체 246명에 18회에 걸쳐 전기차 정비 및 안전관리기술 교육을 진행하며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전기차진단기술센터 흥영선 센터장은 "전기차에 대한 각종 검사, 진단·정비, 수명예측 및 유지관리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센터가 확보한 전기차 생애주기 DB를 바탕으로 향후 수소전기차 주요부품으로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등 미래자동차 산업구조로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재웅 기자 juk@

LG화학

스타트업 환경 개선 안전한 일터 만든다

LG화학이 스타트업의 환경안전 개선을 도우며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LG화학의 안전 환경 전문가들이 스타트업의 생산 공장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점검에 나선 것이다. 갖춰야 할 안전 장비는 무엇인지, 설비는 어떻게 배치해야 안전할지 스타트업 담당자들에게 현장에서 원포인트 레슨으로 노하우가 전수됐다. 마치 골목 상권의 식당이 새 단장하듯이, 맞춤형 솔루션을 받은 생산 공장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곳으로 바뀌어 간다. 5월부터 전국 곳곳의 스타트업에서 벌어질 모습이다.

7일 LG화학은 5월부터 LG전자와 함께 제조업 기반 스타트업 사업장의 환경 안전을 개선하는 SafeCon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SafeCon은 안전(Safety)과 연결(Connect)의 합성어로 '함께 온전히 안전에 연결'한다는 의미다.

'SafeCon' 활동을 통해 스타트업들은 LG화학과 LG전자로부터 ▲교육 ▲컨설팅 ▲변화관리 ▲장비 지원을 받으며 안전한 일터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해 나간다. LG화학과 LG전자는 사회적경제 기업의 금융·공간·인재육성을 지원하는 LG소셜캡머스 플랫폼을 통해 환경안전 지원이 필요하다고 도움을 요청한 전국의 제조업·생산 기반 스타트업을 선정했다.

폐어망 재활용 기업인 '넷스프'와 친환경 장난감과 교육 콘텐츠를 만드는 '플레이3i', 친환경 제품 판매점 '에코언니아', 전자기기 재활용 등 IT자산처리 업체 '리맨', 그리고 친환경 수지와 용기를 제조하는 '그린베어'까지 총 5개 업체가 환경안전 지원 대상 기업으로 선정됐다.

/허정윤 기자 zelkova@

SK시그넷, 전기차충전 연구·시험 '원스톱'

부천시에 'R&D 통합 센터' 개소 글로벌 No.1 기업 도약 발판

SK시그넷이 오는 8월 부천시 도당동에 'R&D 통합 센터'를 개소한다. SK시그넷은 이곳에서 제품의 설계, 개발, 시험 등 전 과정을 수행하며 독자적인 연구개발 역량을 확보해 글로벌 리딩 전기차 충전기 제조사로 도약한다는 목표다.

부천 R&D 센터는 전기차 충전기 제품 개발을 위한 최적의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SK시그넷의 첫 번째 통합 연구개발 센터다. 전기차 충전 기술에 관한 연구와 제품 테스트를 한 공간에서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는 이곳에서 SK시그넷은 충전기 핵심 부품인 파워모듈 설계부터 충전기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개발과 품질 검증 등 전기차 충전기 개발 시험의 전 과정을 수행

해 나갈 예정이다. SK시그넷은 미국 초고속 충전기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다.

신규 R&D 센터 구축을 통해 여의도·일산·안양·수원에 흩어져 있던 연구소 및 테스트 랩(Test lab) 인력 약 150여 명이 한 곳에 모여 R&D 활동을 펼쳐 나갈 수 있게 됐다. 이곳에선 제품 및 펌웨어·소프트웨어 개발 담당, 충전기 유지보수 담당 인력 뿐 아니라 품질 관리 등 다양한 부서의 기술 관련 인력들이 근무하게 된다. 충전기 이용 고객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제품 개발 단계

에서부터 고객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CS 전담 부서도 함께 입주해 R&D 부서와 협업한다.

SK시그넷 신규 센터 구축은 '글로벌 No.1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R&D 투자 확대가 필수라는 판단에 따라 진행됐다. 약 50여 종의 최신 R&D 장비와 계측기 등의 재고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과 이를 운용하기 위한 전력 공급의 적합성, 중장기적 센터 확장성까지 고려하여 약 1300평(4330㎡)의 넓은 공간을 확보한 부천시 도당동 지상 4개 층 단독 건물에 터를 잡았다.

/허정윤 기자